BBConf 2024 Summer

Koder / 박성훈

옵시디언 vs Notion

부제 – 데이터 호딩 전략

1. 자기소개

데이터 호더 / 일단 자료로 남겨야 하는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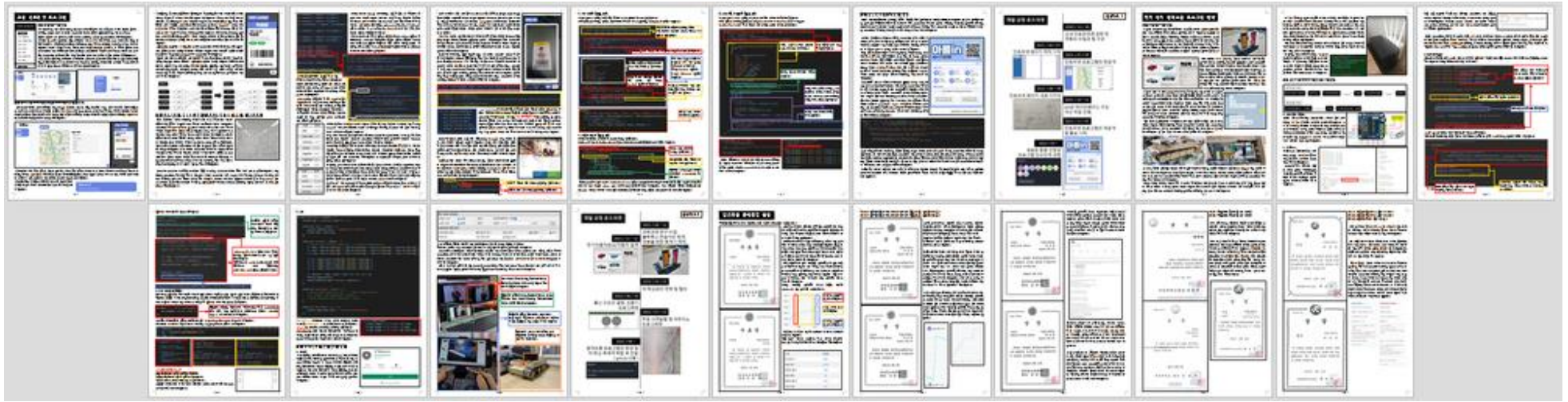
중/고등 학교생활 파일 전부 보유중

대학입시 자료 작성 당시 ctrl C+V로 자료 작성

데이터 수집 강박 == 데이터 호딩에 대한 고민

“잘 정리된 자료“ 는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는 편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koder0205

Platinum V 18.86%

977,040 / 5,181,420

11,813,755 EXP 1,162위 316문제 해결 6명의 라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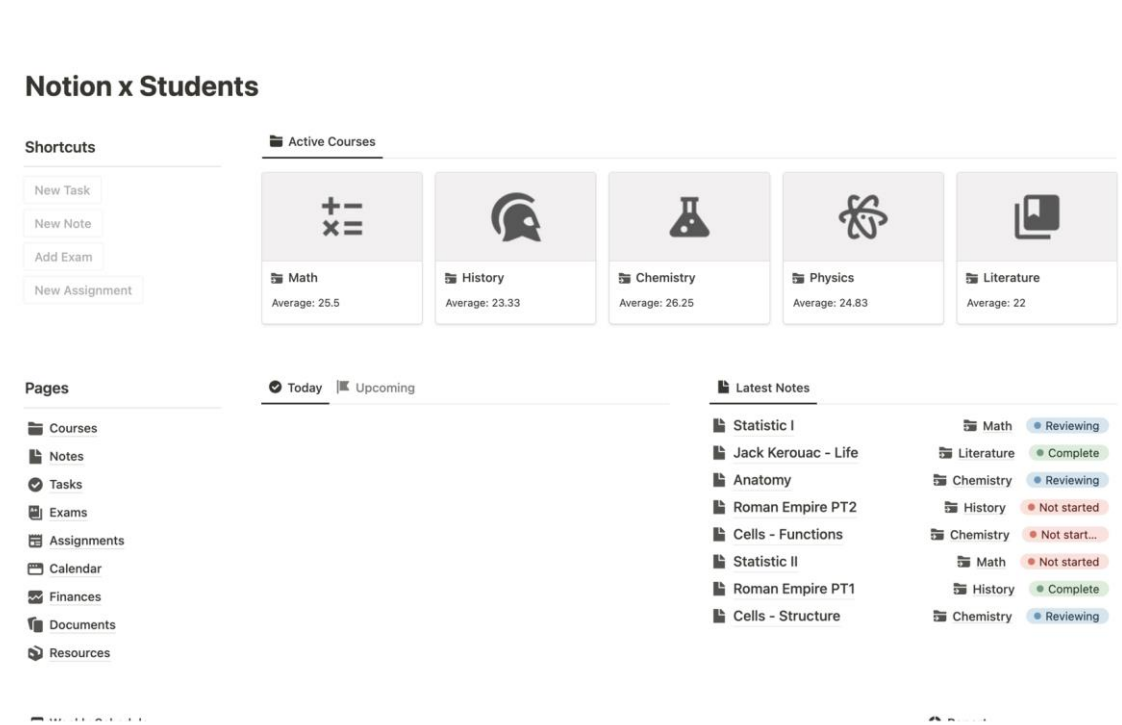
- #recycle
- 2019 아름중학교
- 2020 아름고등학교
- 2021 아름고등학교
- 2022 아름고등학교
- 2023 국민대학교
- 2024 국민대학교
- Obsidian
-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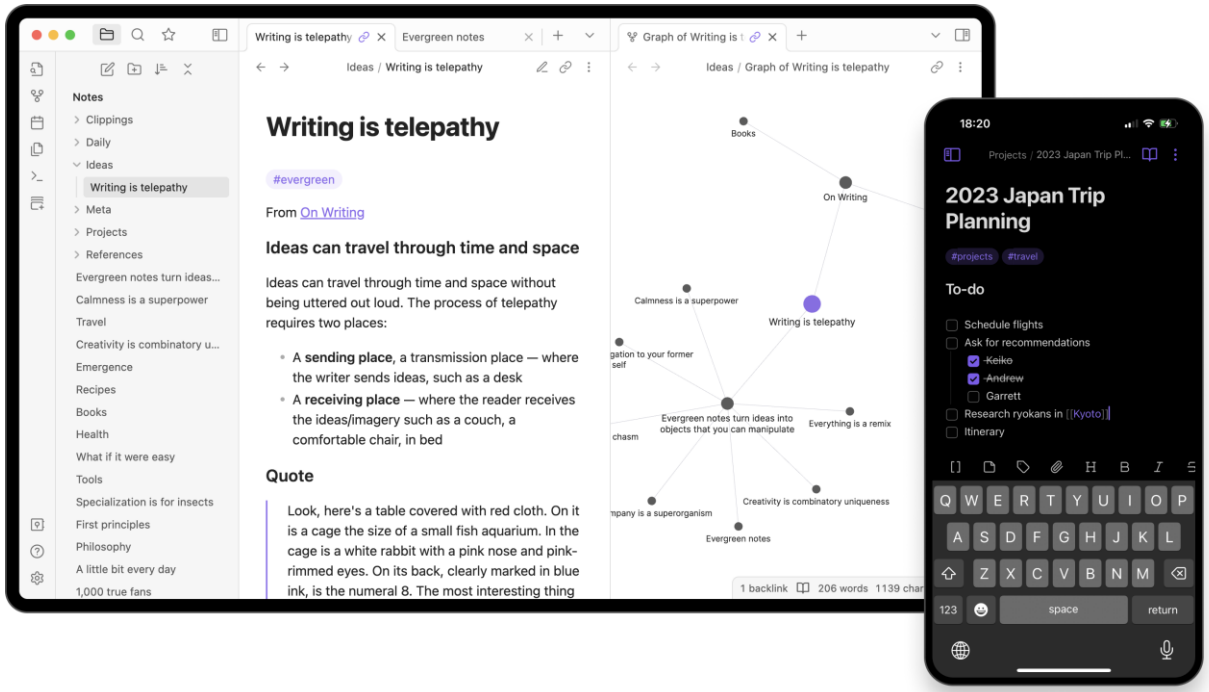
2. Notion / Obsidian

둘 다 노트 작성 프로그램

markdown 기반으로 되어 있음

텍스트 형태의 자료나 정형화된 값을 관리하기에 좋다





둘의 비교는 천천히 해봅시다

3. 데이터를 잘 정리하기

폴더 기반 트리 구조 정리의 단점

폴더 depth가 한도끝도없이깊어짐

ServerPath/home/document/2024/bbconf2024summer/발표자료.pdf

이는 Notion도 공유하는 단점 중 하나

해결책) 바로가기 or 즐겨찾기의 활용

Hot하게 접근하는 문서/폴더만 바로가기

리스트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면 편리함

스크린샷에서도 24년 1학기 정리 안되어있음

정리/바로가기 관리를 무언가에게 짬처리하는 방법은 없나?

Koder / 박성훈

4. 노션과 옵시디언 비교분석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쓰는가

4-1. 둘의 공통점

Markdown 기반

다른곳에 옮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데이터 호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 – 서비스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다 치더라도 사용자인 나는 변심이 잦음

Markdown의 한계

결국 텍스트의 범위를 못 벗어남

사진 / 음악 / 영상 / 필기… 복잡한 자료가 이렇게나 많다.

이런걸 커버하는 flavored Markdown은 호환성이 떨어짐

실제로 노션은 내부적으로는 json으로 저장합니다.

문단과 문단 사이는 빈 줄(엔터키 두 번)로 구분한다.

```
하나의 문단.

다른 문단.
```

문단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 큰 제목
## 중간 제목
### 작은 제목
```

또한, 큰 제목과 중간 제목은 다음과 같은 문법도 사용가능하다.

```
큰 제목
==========

중간 제목
----------
```

이탤릭체는 다음 문법을 사용한다.

```
*이탤릭체*, _이탤릭체_
```

볼드체는 다음 문법을 사용한다.

```
**볼드체**, __볼드체__
```

하이퍼링크는 다음과 같은 문법을 사용한다.

```
[링크명](http://www.example.com), [링크명](http://www.example.com "사이트 제목")
```

블럭 인용은 다음과 같은 문법을 사용한다.

```
>문단.
```

각 문단의 첫 줄 앞에 >를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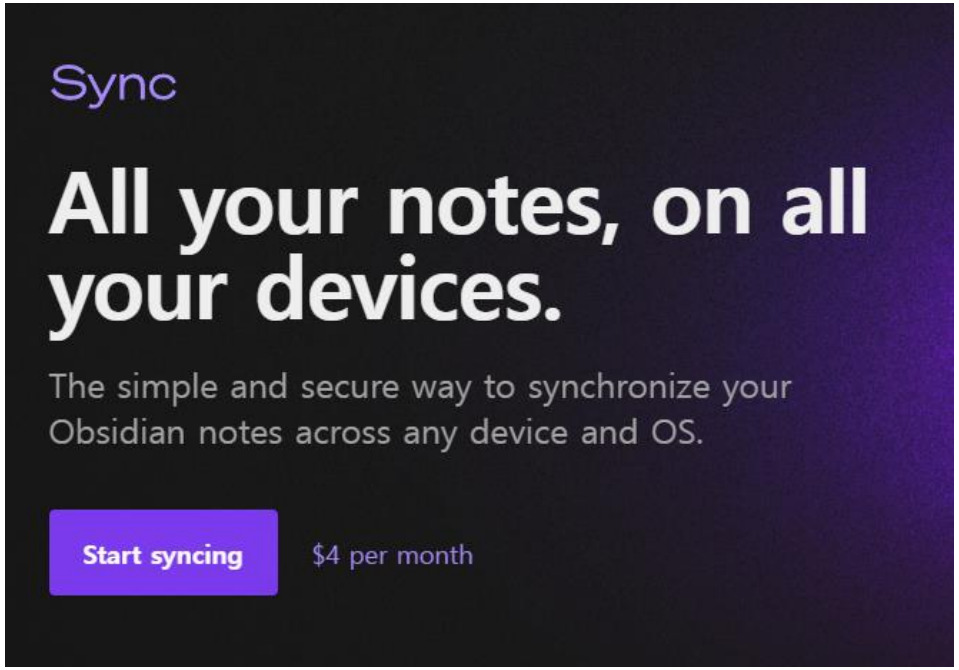
순서가 부여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법을 사용한다.

```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

4-2. 둘의 차이점 : 온오프라인

Notion은 online 기반, Obsidian은 offline 기반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는지가 중요해짐



Obsidian이 더 나은 경우

내 잡소리 남이 보는게 싫은 경우

내 맘대로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싶은 사람인 경우 == selfhosting 애호가인 경우

단일 기기에서 사용이 잦은 경우

Notion이 더 나은 경우

문서를 혼자서 작성하는게 아닌 경우 / 문서를 public하게 공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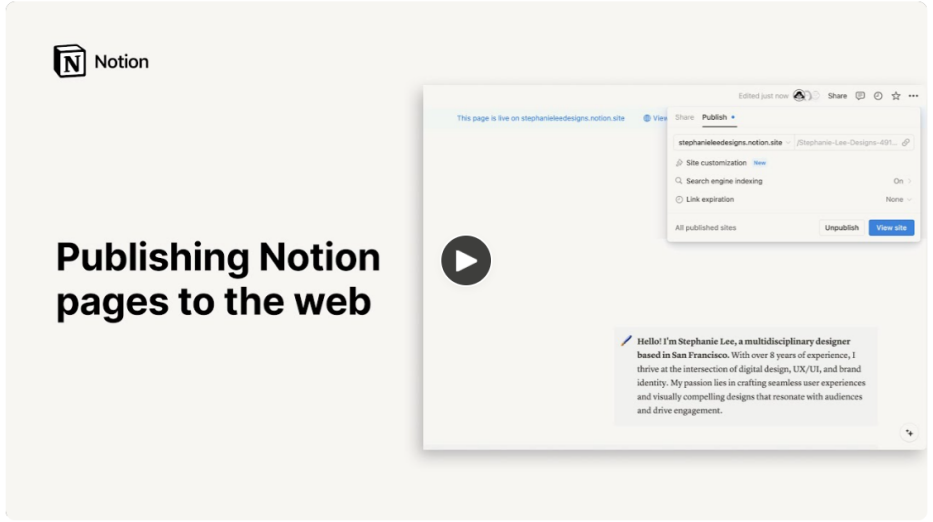
알아서 잘 동작해줬으면 하는 경우

노트앱을 일일히 신경쓰기 귀찮은 경우

Publish Notion pages to the web

Turn any Notion page into a published website in just two clicks - really! It comes in handy more often than you'd think. Use it for your resume, blog, company handbook, and more.

소요 시간: 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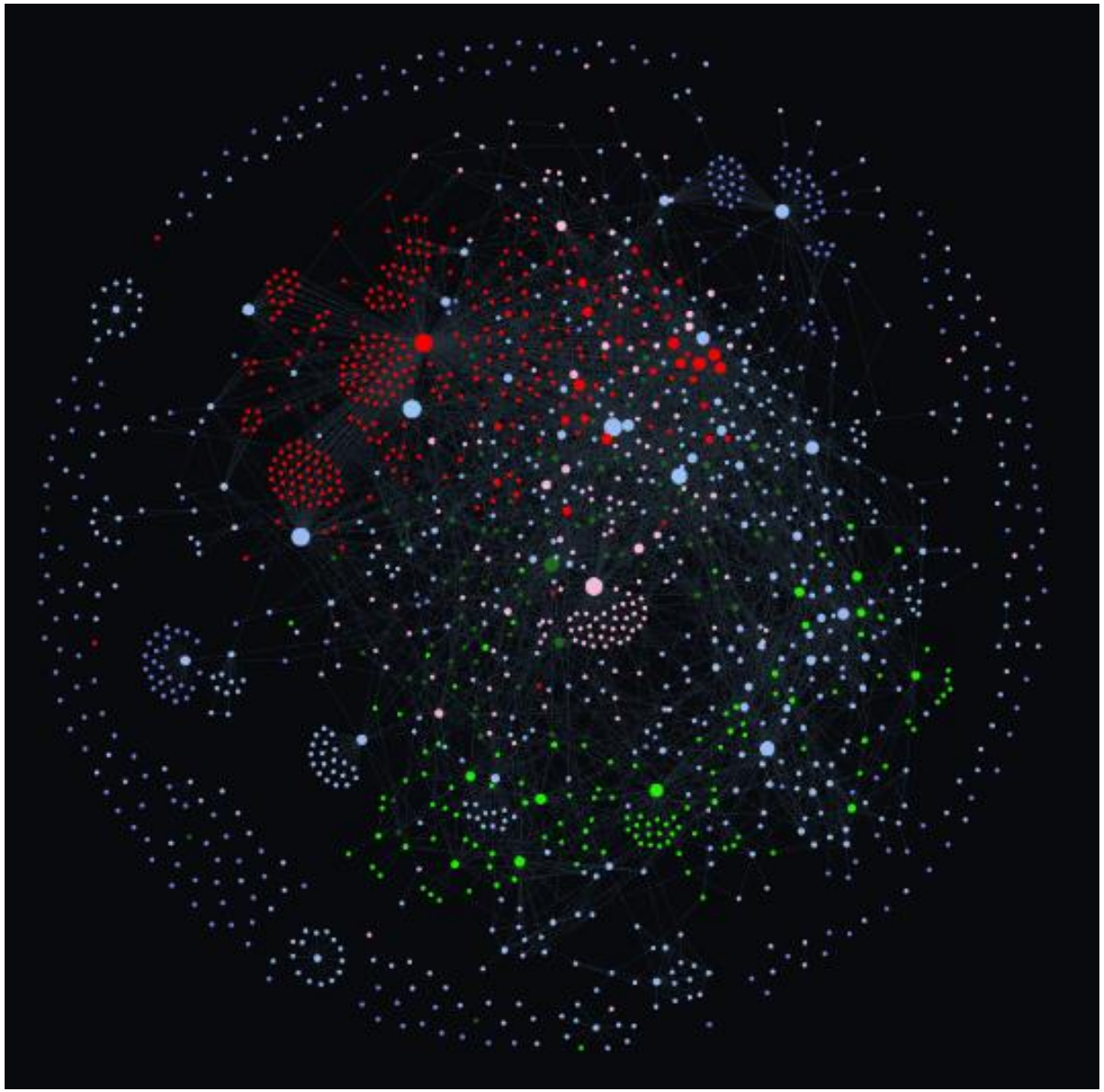


4-3. 둘의 차이점 : 정리 규모

온오프라인의 연장선

당연히 상식적으로 오프라인인 obsidian이 훨씬 빠르다

Graph view의 존재



Obsidian이 더 나은 경우

Graph view를 2차원 폴더 뷰라 생각하자

2차원 평면에 노트를 분산 배치하고, 다양한 색깔을 칠할 수 있다

노트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경우 / 트리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Notion이 더 나은 경우

대부분의 인간은 텍스트파일을 "엄청" 많이 만들지는 않음

노션은 단일 파일이 크면 렉걸립니다 : 글이 길지 않은 경우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쉬운 자료인 경우

4-4. 옵시디언 의외의 단점

N-columns page

소금간 덜한 markdown 날것의 맛

플러그인으로 되긴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귀찮음

옵시디언은 한 페이지에 내용이 많은경우 적합하지 않다

Text displayed above.

--- start-multi-column: ExampleRegion1

```
number of columns: 2
```
column-settings

목표

--- end-column ---

회고

--- end-multi-column

Text displayed below.

반년 단위 예정

🔥 목표

🔥 회고

4-5. 어디에다 정리하는게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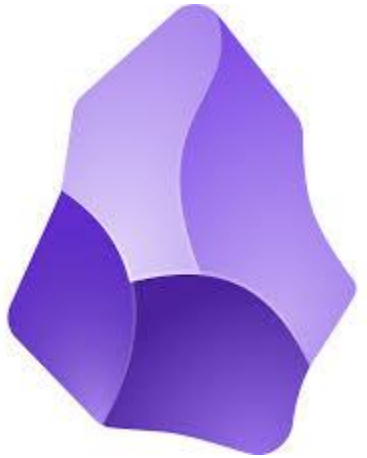
유형에 따라 다르다

매일 쓰는 일기는 어디에?

내 성과나 대외활동 관련 자료는 어디에?

Todo 리스트는 어디에?

남들과 같이 보는 문서는 어디에?



한 학기 공부 자료는 어디에?

공부하면서 배운 거 정리는 어디에?

헛소리 사이드프로젝트 아이디어 짬통은 어디에?

블로그 글 초안은 어디에?

핵심 : 둘 중 하나만 쓸 이유가 없다

하나만 쓰라고 아무도 칼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BBConf 2024 Summer

Koder / 박성훈

5. 데이터 호딩 전략

노트 프로그램 열심히 뽕뽑는 법

5-1. 노션의 public 활용하기

노션은 외부 공개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매우 강력

Notion API의 존재 (3 query/sec rate limit)

사용례 : notion database를 headless cms로 사용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그대로 홈페이지 개발시에 박아넣을 수 있다

자기소개/CV/Resume 나열하는거 노션으로 관리할 수 있음 (동적 생성)

notion을 원본으로 나머지가 sync되게 할 수 있다

Timeline

표 표 +

# Order	Aa Name	# Start	# End	Color
0	삼성전자 주소아	2015	2015	0C4DA2
10	아름중학교 재학	2017	2019	900026
11	국립공주대학교 부속영재교육원	2017	2017	324eb3
11	SASA 부속영재교육원	2018	2018	013b84
20	아름고등학교 재학	2020	2022	3594d3
21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처음반	2020	2020	d56435
30	국민대학교 재학	2023	2024	004F9F
31	과동아리 KPSC 회장	2023	2024	60a5fa
32	GDSC Kookmin Organizer	2024	2024	34a853
32	SW마에스트로 15기	2024	2024	003764

대외활동 Timeline

코더빡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5-2. 노션의 database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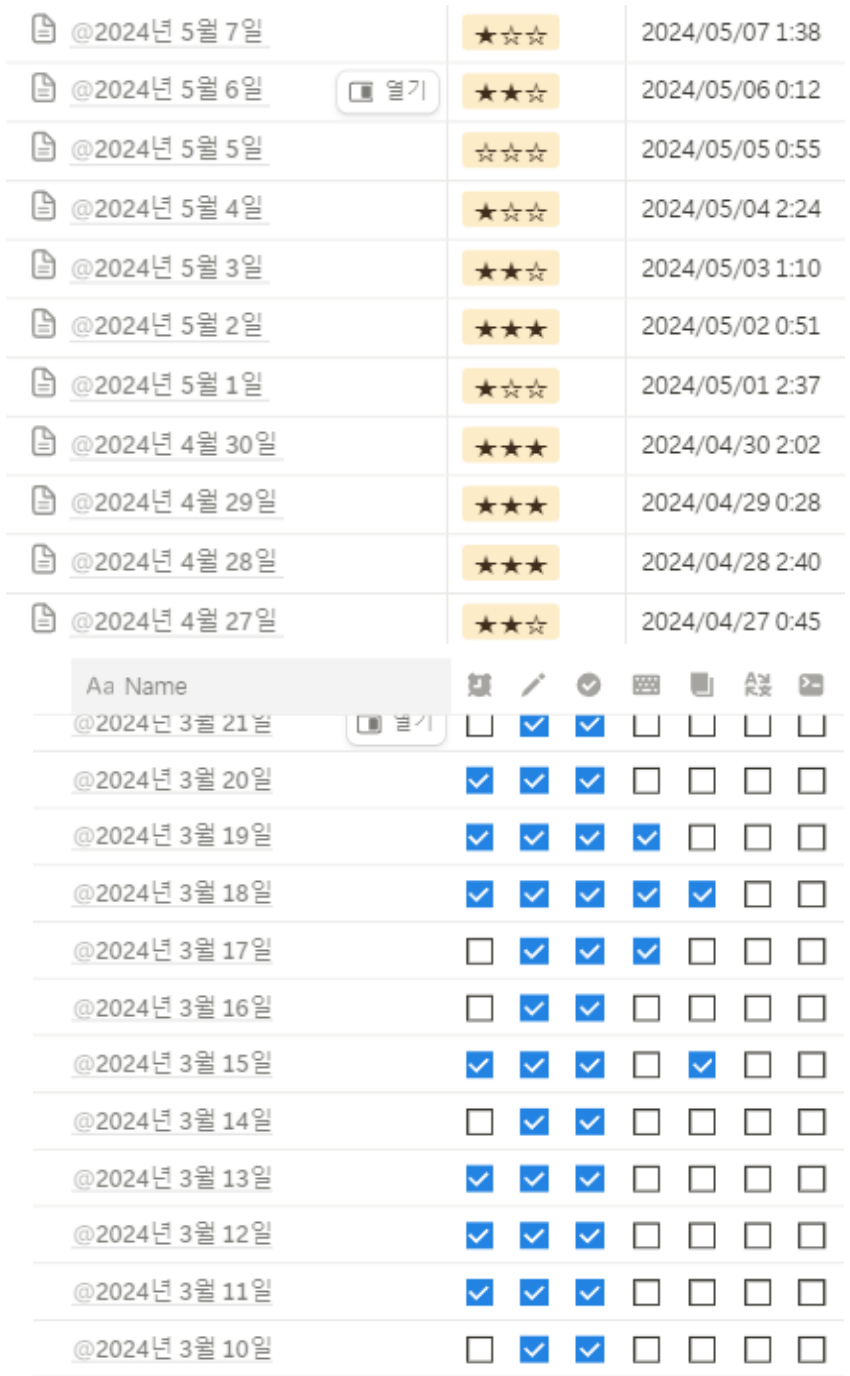
노션의 database는 자체적인 자동화 기능도 지원

템플릿을 사용시 매일 동일한 규격의 문서를 생성 가능

매일 해야하는 습관 (백준 스트릭 등) 을 tracking

특정한 기간마다 일기/스프린트 회고를 쓰기

서로 연관이 없는 문서가 자주 생성되는 경우 obsidian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5-3. 옵시디언 graph view 활용하기

어느 하나로 딱 안떨어지는 문서도 쉽게 정리 가능

Ex) 자기소개서이면서 동시에 소마15기 활동의 일환인 소마 15기 자기소개서 문서

기본적으로 유향 그래프를 생성해줌

만일 DAG로 만든다면? -> 위상정렬 가능, 프로젝트 관리에 압도적으로 편함

노트를 러프하게 완료됨 / 아님 정도로 구분해 색을 칠하면 보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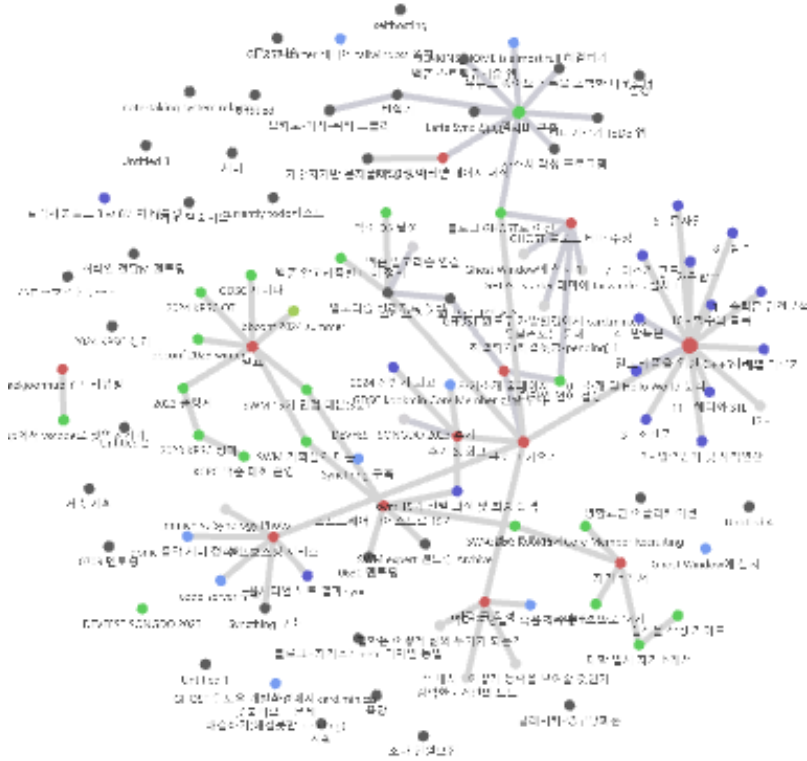
목표 관리에 사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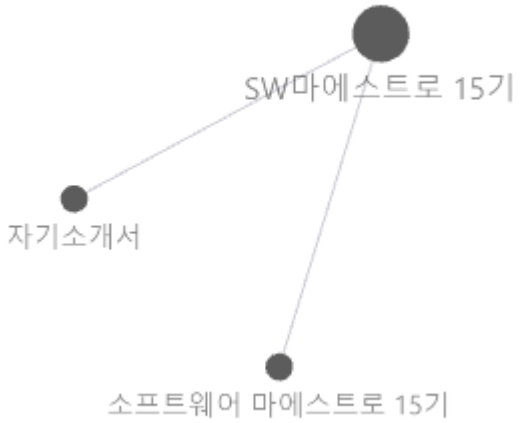
노트를 최대한 잘게 찢어놓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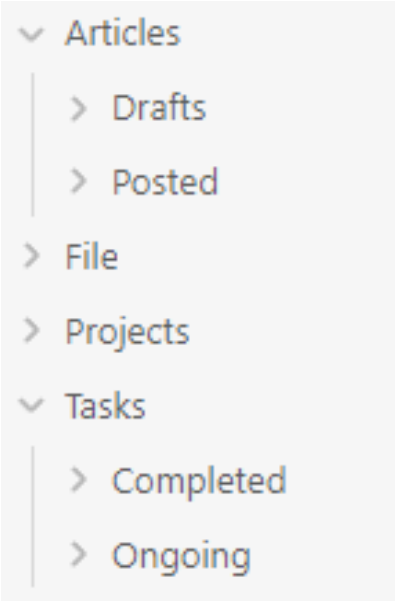
잘게 찢은 노트일수록 연결을 많이 할 수 있다.

쪼개고 연결하고 하기 귀찮긴 하다

옵시디언 잘써먹는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 연결에 있다고 생각







5-4. 옵시디언 플러그인

뭐가 많다…

너무 많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귀찮아서 스킵함

플러그인 소개해주는글 998244353개는 본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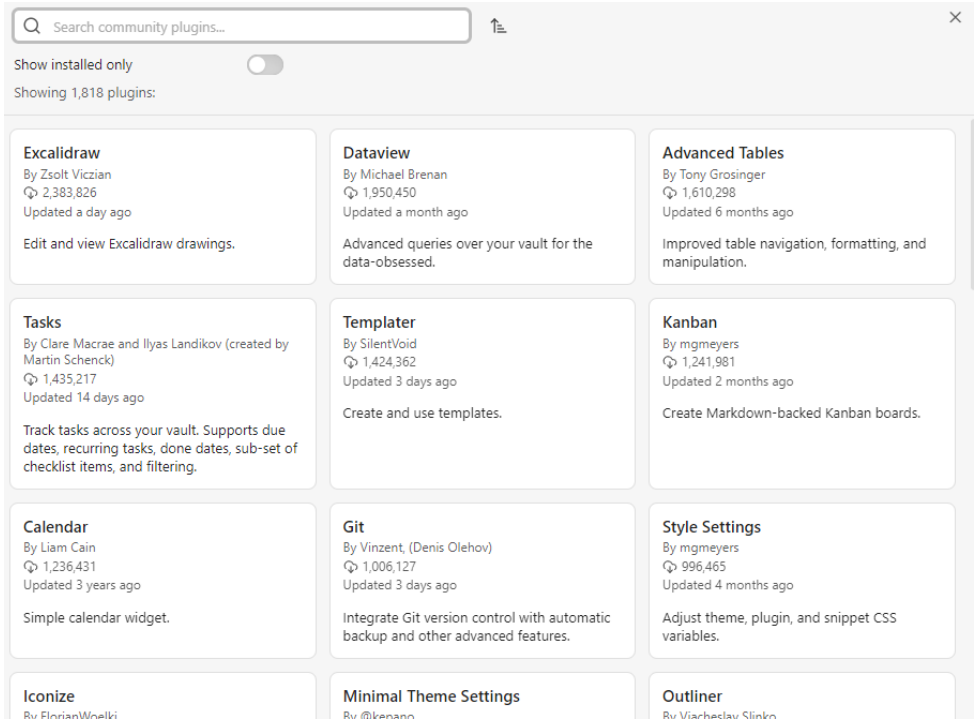
테마 적용시켜서 자기만족할수 있음(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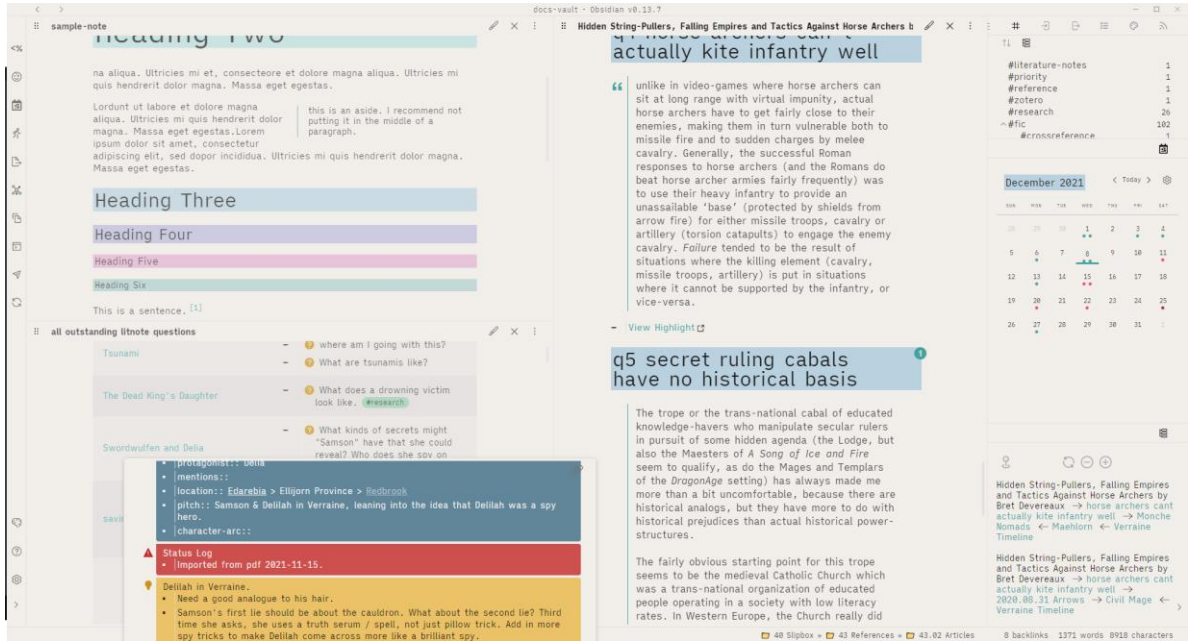
동기화에 돈쓰기 싫다 하시면 remotely save 같은거 쓰셔요 (사용중)

옵시디언 vim모드 등 뭐가 많습니다

최근엔 GPT 넣어서 연관성 있는 노트 연결 추천해주거나 하는거같아요

자기 입맛대로 커스텀하는 재미가 있음





6. 결론

노트의 세계는 깊다

BBConf 2024 Summer

Koder / 박성훈

감사합니다

더 괜찮은 솔루션 있으면 언제든 추천받습니다